



국토교통부

보도참고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2. 6. 15.(수)		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	책임자	과 장 김홍락 (044-201-4204)
	항공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김동현 (044-201-421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코로나-19 위기극복 함께 하겠습니다 공항시설 사용료·임대료 감면기간 추가 연장

- 올해 12월까지 6개월 연장... 총 3,566억 원 감면 효과 기대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, 인천국제공항공사(사장 김경옥), 한국공항공사(사장 윤형중)는 '19년 동월 대비 국제선 항공수요가 아직도 △87.3%(22.5월)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, 공항시설 사용료 및 상업·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'22.12월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.
- 그동안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-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, 2020.3월 이후 상업시설 임대료,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·유예 등을 실시해 왔다.
 - 구체적으로 인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는 착륙료의 일부를 감면(인천공항공사 20%, 한국공항공사 10%), 정류료·계류장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하는 등 총 2,599억원을 지원해왔고, 면세점 등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 4,819억원,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총 1,006억원을 감면하는 등 총 2조 8,384억원을 지원해 왔다.
- 한편,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, 아직까지 항공수요*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

* '22.5월 항공여객 440만명, '19년 동월比 △57.3%(국제선 87.3%↓, 국내선 20.4%↑) 감소

- 다만,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, 국제선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‘국제선 조기 정상화’ 추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항공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실제 정책효과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는 실정이다.
-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, 상업시설·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되,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‘23.1.1일자로 감면을 종료하기로 하였다.’
 - * 그간 중도감면 종료조건이었던 ‘19년 동월 대비 국제여객 항공수요 80% 회복 시 익월 감면종료 조건은 부여하지 않기로 하여 업계의 년 내 감면종료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
-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3,566억원*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 - * 공항시설 사용료 296억원 + 상업시설 임대료 3,140억원 +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원
-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“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-19 상황을 잘 견뎌내고 건설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 사용료,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”면서,
 - “더불어 6월 8일부터 시행된 ‘국제선 조기 정상화’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(飛上)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”한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홍락 (044-201-4204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현 (044-201-4213)
담당 부서	인천국제공항공사 기획조정실	책임자	실 장	강용규 (032-741-2180)
		담당자	팀 장	성기광 (032-741-2181)
담당 부서	한국공항공사 기획조정실	책임자	실 장	남창희 (02-2660-2241)
		담당자	부 장	주현용 (02-2660-2531)